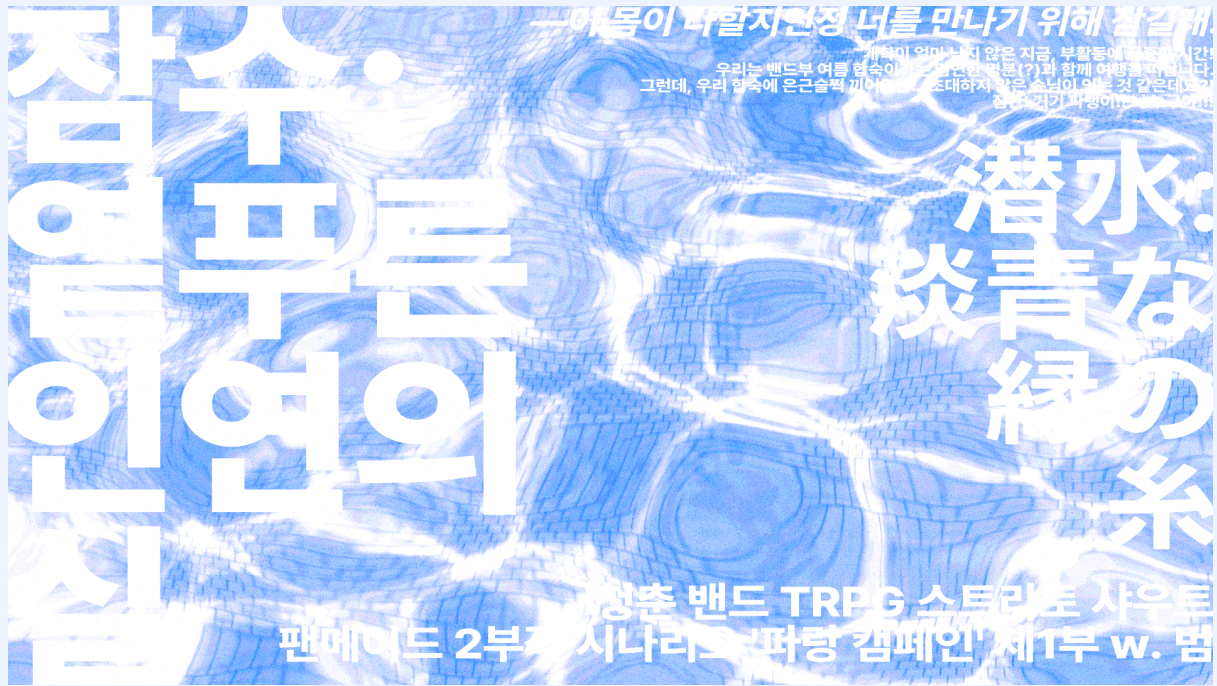


잠수: 열 푸른 인연의 실(潜水: 淡青な縁
の糸)



잠수: 열푸른 인연의 실 (潜水：靑な縁の糸)

- 스트라토 사우트 캠페인 2부작 「파랑 캠페인」 제1부 -

w. 뱀

개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부활동에 집중할 시간!
우리는 밴드부 여름 합숙이라는 엄연한 명분(?)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합숙에 은근슬쩍 끼어드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거기 파랑이!! 너 누구야!!! 설마... 유령?

시나리오 정보

인원: 4~5인
리미트: 2
타겟: 송이/유이
DP: 150 (DP와 굴레 지배력은 인원, 레벨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해 주세요.)

굴레 카드: 3장

주의 요소: 소중한 이(스포일러:)의 죽음, 잠수 묘사, 어두운 공간 (개변 가능합니다.)

추천 가사 시트: 김삿돌 - COBALT | 요루시카(ヨルシカ) - 쪽빛 제곱(藍二乗) | 요네즈 켄시(米津玄師) - 잿빛과 푸름(灰色と青)

약칭: 잠수실

NPC

은수아/마루시미즈 토유(丸清水 透由) :: 근래 전학 온 데다 워낙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이라 대부분은 모르는 학생입니다. 최근에는 질병이나 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자주 결석하기도 했죠.

송이/유이(ゆい) :: 휴양지에 온 PC들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푸르스름한 유령입니다. 자꾸 친근하게 말을 걸며 우리를 따라오는데요?!

주의사항

초면이 아닌 관계의 밴드로 플레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밴드를 여름휴가에 보내보세요... 아주 밝지만은 않은, 씩씩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입문용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전용 특수 장면표가 있습니다.

본 시나리오는 인원과 리미트, DP, 가사 시트, 굴레, 진상, 그 외 지문 등의 개변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본 시나리오는 모험기획국이 발간한 청춘 밴드 TRPG 스트라토 샤우트(青春バンドTRPG 스트라トシャウト)의 비공식 팬메이드 시나리오입니다.

본 시나리오의 자작 발언, 수정 후 재배포, 무단전재, 문서 사본 생성 및 백업, 스포일러가 포함된 쿠션 없는 공개성 게시글 작성, 룰북 미소지 마스터링 행위를 엄금합니다.

이하 GM용 정보입니다.

PL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캠페인 전편 완주 전까지 열어보지 않는 쪽을 권장합니다.

숨겨진 이야기

캠페인 전체 진상

여기, 서로 사랑했던 주인과 강아지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봄날, 수아는 길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는 강아지 송이를 발견합니다. 그날따라 무슨 결심에서 비롯되었는지, 본래 소심한 아이였던 수아는 용기를 내어 송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후 몇 달간 수아는 송이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목숨을 건진 송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고, 평소 예민하고 우울한 수아 또한 송이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나날은 한 계절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송이는 여름이 채 다가오기도 전에 세상을 뜨고, 결국 송이의 죽음을 맞이한 수아는 큰 상심을 얻습니다. 이후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 수아를 본 부모님이 보다 못해 새 동네에서의 출발을 제안하고, 수아는 그러고 싶지 않았으나 부모님을 이기지 못해 결국 죽은 송이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수아가 이사를 하며 전학 온 학교가 PC들의 학교입니다.

새로운 동네에 정착한 수아는 새 환경에서도 여전히 송이를 잃은 슬픔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줄곧 학교에 결석하고, 나와도 특별한 대화 없이 가만히만 있다 보니 새 친구를 사귀는 일도 없었죠. 그나마 수아를 받아주던 몇몇 사람들은 이내 수아에게 별거 아니라는 둥, 이제는 그만 잊고 새로 적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둥 무심코 췌기를 박기도 합니다. 결국 수아는 또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죠.

한편, 송이는 마지막까지 떠나고 싶지 않아 했던 수아를 차마 두고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송이는 수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살던 동네를 떠돌게 됩니다. 유령의 힘을 빌려 수아의 꿈에도 들어가 봤지만, 아무리 송이가 위로를 건네거나 다가가도 수아는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가꾸 나갈 용기를 쉽사리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아의 입장에서 송이가 자꾸 꿈에 나오다 보니 반갑지만 울적한 데다, 깨어나면 다시 송이가 없을 현실이 더 서럽게 느껴질 뿐이었죠. 송이가 사라지면 꿈에서조차 영영 보지 못할 생각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송이는 애완동물이다 보니 수아의 꿈속에서 제대로 말을 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수아가 자신과의 이별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아가 기운을 차리고 지금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수아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를 줄곧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람과는 다르게 점점 약해져 이제는 곧 소멸하고 말 유령의 힘, 설상가상으로 죽은 자신을 두고 전학 간 수아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송이는 도움을 요청할 누군가를 찾아 한참 동안 사람이 자주

드나들 만한 장소인 휴양지 주변을 배회합니다. 그나마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되는 낯선 새 옷, 수아의 교복을 인간의 형상을 빌려 입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때마침 휴양지에 여름휴가를 온 사람, 동시에 수아의 교복이 낯익은 이들이 바로 PC들입니다.

1부 진상

시나리오 1부에서 PC들이 마주하는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아가 송이를 구해줌으로써 둘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2. 이후 수아와 송이는 일상을 함께하며 힘이 되었으나 송이는 금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3. 수아는 결국 송이의 곁을 떠나 이사했지만, 수아가 살던 곳을 떠난 데에는 수아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다.
4. 송이는 수아의 꿈에 들어가 수아를 만났지만, 수아를 쉽사리 다독일 수 없었다.

시나리오 1부에서 PC들은 송이의 부탁을 받아 다시 한번 수아의 꿈에 ‘잠수’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연주합니다. 송이의 진짜 정체와 수아와의 관계, 수아가 송이를 떠나야 했던 이유, 새로운 곳에 정착한 이후 수아의 삶, 그런 수아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 수아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모두 시나리오 2부에서 밝혀집니다.

NPC(GM용 정보 포함)

은수아/마루시미즈 토유(丸清水 透由)

수아를 알고 있는, 혹은 수아의 이름을 들어 본 PC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근래 전학 온 학생인 데다 워낙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이라 대부분은 수아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질병이나 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자주 결석하기도 했죠. 하지만 친구들에게 수아의 행방을 물어도 아는 이는 없습니다. 그야, 그와 제대로 된 이야기는커녕 말 한 번 섞어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니까요.

수아에게 송이의 이야기를 꺼내면 수아는 우울해하며 답을 피하거나, 종종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수아는 송이를 잊지 못한 채 여전히 사랑하지만, 주변에는 수아에게 그만 털고 일어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수아를 처음 만나 그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수아의 입장에서ですよ!)

송이는 수아의 내성적인 성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수아가 가진 우울의 원인이 송이의 죽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본래 성격일 수도, 다른 계기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의 해석은 각 탁에 맡깁니다.). PL의 트리거와 주의 요소를 파악한 뒤 탁에 맞춰 송이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RP가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착한 심성을 갖고 있지만 자주 주눅 들어 하고 소심해하며, 때로는 신경질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송이/유이(ゆい)

휴양지에 온 PC들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푸르스름한 유령.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송이의 진짜 정체는 수아가 키우다 무지개다리를 건너 강아지(다른 애완동물로 개변해도 괜찮습니다)입니다. 제 죽음으로 인해 우울함에 빠진 수아를 차마 두고 떠날 수 없어 현재 떠돌이 영혼으로 이승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빌려 마지막으로 본 수아의 새 교복을 입고 동네의 휴양지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이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곧 파란 유령으로서의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그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송이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 PC들이 송이에게 수아와의 관계를 묻는다면 송이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동물이며, 수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외에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자신이 애완동물임을 설명하는 것도, 동물의 형상으로 인간의 말을 하는 것도 평범한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상해 보일 테니까요(본모습일 때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설정도 괜찮습니다).

시나리오 1부부터 송이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RP(고등학생 나이에 맞지 않는 언행, 단순한 어휘 사용, 해당 동물의 행동 습성 등)을 곁들이면 더욱 흥미로운 진행이 되겠습니다.

순수하며 불임성이 좋고 활발합니다. 간혹 사람을 경계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나리오 특수 장면표 - 휴가

시나리오 1부에 한정해 휴가 장면 연출을 돕기 위한 장면표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이 있는 휴양지(계곡, 바다 등)를 가정하고 작성했지만, 여름휴가에 부합하는 다양한 배경(야시장, 불꽃 축제, 바비큐 등)을 반영하면 더욱 다채로운 세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과 장소 변경에 따른 자유로운 장면표 수정 및 룰북 장면표와의 혼용이 가능합니다.

2	음, 분명 리스트대로 사 온 것 같은데. 무언가 하나 빠졌잖아?! 사러 가야 할까?
3	어라, 저기 옆에 지나가는 건 뭐지. 바나나 보트인가, 래프팅인가?
4	이번 여름 합숙 숙소는 어떨까? 짐도 풀고 잠깐 드러누워 볼 겸 구경해 보자!
5	지저귀는 새소리와 코를 간질이는 풀 내음. 평온하고 활기찬 여름의 낮이 흘러간다.
6	침병거리는 물소리가 들린다. 우리도 슬슬 물놀이를 즐겨 볼까?
7	앗, 차가워! 옆에서 누군가가 물을 튀겼다. 누구지?!
8	한바탕 놀고 나니 배가 꼬르륵거린다. 금강산도 식후경! 오늘의 메뉴는 뭐지?
9	물에 들어가기 전 철저한 준비는 필수! 스트레칭도 하고, 튜브에 바람도 넣어 보자.
10	물가에 가니 곳곳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우리는 어디에 앉을까?
11	그새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다. 잠시 비를 피하면서 수다나 떨어 볼까.
12	저기, 물에 떠내려가는 저 물건은 뭐지? 누가 뭐 흘려서 잃어버렸나? 누구야?!

서브 시나리오: 여름 합숙인데 놀기만 해서 쓰나!

STEP A. 준비는 늘 귀찮아 - 외부 연습실에 장비 세팅하기

부실이 아닌 장소에서의 장비 세팅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합주를 위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은 늘 복잡하고 정교하죠.

STEP B. 처음은 역시 선곡부터 - 여름 연습곡 선정하기

남은 여름방학 동안 우리의 실력을 듬뿍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곡을 선정, 또는 직접 작사/작곡해 봅시다!

STEP C. 우리 이만큼 했어요! – 부활동 합숙 일지 작성하기

그래도 부활동이니깐요. 동아리 외부 활동을 증명할 서류 작성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STEP EX. 훈련만이 남았다 – 본격 여름 합주, 시작이다!

장비, 선곡, 그리고 서류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연습뿐!

시나리오

인트로 페이지

마스터 장면 1. 여행을 가자!

등장인물: 전원

개학이 머지않은 여름방학, 우리는 밴드부 여름 합숙이라는 명목과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부활동이 본 목적이든, 혹은 그저 우리끼리 여행을 가기 위한 명분이든!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활동 증명을 위한 최소한의 연습은 필수겠지만요! 그러니 악기와 비품도 잊지 않고 조심해서 챙겨갑시다.

PC들이 여름 합숙을 준비하고 떠나는 장면을 연출해 주세요. 장보기, 짐 챙기기, 휴양지 가는 길, 악기 옮기기 등 자유로운 장면 구성과 함께 분위기를 띄워 줍시다! 시나리오상에서는 물이 있는 휴양지(계곡, 바다 등)를 가정하고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장면표를 확인해 주세요.

마스터 장면 2. 거기 파랭이!! 너 누구야!!!

등장인물: 전원

여행지에 도착하고 짐을 모두 풀면 드디어 놀 준비 완료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새파란 하늘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놀러 가려는 찰나... 어라? 저 멀리 우리의 앞에 푸르른 인영이 일렁거립니다. ...잠깐, 뒤 풍경이 비쳐 보이는데요? 설마 말로만 듣던 유령?! 인영은 불쑥 우리 앞으로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헤헤... 안녕? 즐거워 보이는데~ 괜찮다면 나도 잠깐만 껴서 놀고 싶어서!”

“나는 송이라고 해!”

뜬금없이 나타난 녀석의 복장을 보아하면… 우리 학교 교복(테스트 플레이에서는 하복이 아닌 동복으로 시간차와 위화감을 주었습니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었던가요? 아니, 애초에 이 한참 떨어진 동네에 우리 교복이 왜?!

적절히 자기소개를 하면서 PC들과 친해져 봅시다. PC들이 착장에 의문을 가지면 송이는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굴레의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수아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남겨도 좋습니다. PC들이 수아를 떠올려 보면 아예 모르겠거나 가물가물합니다. 이름을 들어봤거나 실물을 봤다 해도 원체 존재감 없이 조용히 지내는 아이였던 기억 말고는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으게, 이 옷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 바닷가를 쭉~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찾아야 할 친구가 있어서…”

같이 다니자는 제안을 거절하면 송이는 필살기(!) 울먹울먹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졸졸 따라다닐 셈이지만요. 받아주면 해설해설 웃으며 신납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객원 멤버가 한 명 늘었습니다. 뭐, 새로운 인연과 휴가를 만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수아와 접점이 있는 PC, 또는 송이에게 가장 친근하게 대해 준 PC 한 명은 송이에 대한 【인연】을 1점 획득합니다. 이후 초기 인연 획득 판정을 진행합니다.

서브 시나리오 스텝 A와 가사 시트를 공개한 다음, 굴레 ① 「나를 적셨던 푸르스름 가랑비는」을 출현 상태로 두고 장면을 종료합니다.

드라마 페이지즈

마스터 장면 1. 곧 우리를 휘감은 파란 실,

굴레 ① 「나를 적셨던 푸르스름 가랑비는」의 접근 판정에 성공하면 삽입합니다.

“수아는 나를 구해줬거든! 으음~ …언제였더라. 비가 오는 날이었어.”

“그날은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춥더라. 근데 하필이면 그날 길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담벼락에 쭈그러 앉아 있었어.”

“그런데 말이지~ …뚝! 비가 멈추는 거야. 올려다보니 그 아이가 있었어.”

“돌이켜보면 수아가 나를 구해준 거지. 집에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고, 길거리는 너~무 어두웠거든. 수아가 날 가여운 듯이 보더라. 무척 곤란해 보였어. 그리고… 한동안 가지를 않더라고.”

“그게 시작이었어.”

송이는 수아와의 첫 만남을 털어놓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송이에게 처음 온기를 내준 수아.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 손을 내밀어 준 수아. 푸르스름 가랑비가 기다란 인연의 실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밴드원들의 만남과 밴드 결성 과정, 수아와의 유대감 등의 주제와 이어 RP하면 더욱 재미있는 장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쿨레 ② 「새파란 물결로 넘실대다」를 출현 상태로 두고 장면을 종료합니다.

마스터 장면 2. 이윽고 질푸른 밀물로 번져

쿨레 ② 「새파란 물결로 넘실대다」의 접근 판정에 성공하면 삽입합니다.

“나, 실은 몸이 안 좋았거든! 송이, 유령이 된 것도 아파서였어.”

“그래도 수아가 엄~청 보살펴줬는데, 조금 더 힘내고 싶었던 말이지. 그날 이후로 수아랑 좀 더 가까워졌거든! 수아한테 신세를 좀 졌어.”

“있지, 내 착각이나 바람일 수도 있는데… 수아도 내가 필요했던 것 같아.”

“처음 수아를 봤을 때는 뭐랄까… 무척 어두워 보였거든? 근데 나랑 놀 때마다 웃었어! 수아가 나를 보며 힘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달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괜찮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날이었어.”

이후로도 송이는 자랑을 이어갑니다. 수아가 옆에서 공부하는데 자기가 방해해서 수아가 그만 곤란해져 버렸다던가, 그래도 결국 성원을 못 이기고 자기를 간질여 줬다던가, 멋진 거리의 벤치에 앉아 내리쬐는 햇살에 그만 함께 잠이 깜빡 들었다던가.

수아가 두 손으로 자기를 번쩍 들었다면서 무척 힘이 셸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여태 들었던 수아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판판이네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 위로의 물결, 깊고 안락한 밀물입니다.

쿨레 ③ 「네게 서슬 퍼런 멍 자국으로,」를 출현 상태로 두고 장면을 종료합니다.

마스터 장면 3. 내게 풀리지 않은 실타래로.

쿨레 ③ 「네게 서슬 퍼런 멍 자국으로,」의 접근 판정에 성공하면 삽입합니다.

“수아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 송이는 생각보다 무~척 대단하거든!”

“수아를 실제로 직접 본 건 아니야. 내가 유령이 되고 나서 수아는 이사를 갔으니까. 수아가 집에서 떠나가는 날 수아에게 인사했어. …물론 수아는 볼 수 없었겠지만.”

“그런데 있지. 수아, 무척 싫은 표정이었어. 여길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수아의 그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혼자 저~ 하늘로 못 가겠는 거야.”

“수아가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열심히 힘냈어. 수아의 꿈에 들어가 봤거든!”

“겨우겨우 수아를 만났는데, 있지… 수아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자꾸 나를 피하고, 나한테 화내고…”

“게다가 수아의 꿈은 너무 어려워. 눈을 땡~그렇게 떠도 캄캄하고, 길도 못 찾겠단 말이야! 그런 데서 숨어 버리면 숨바꼭질, 어떻게 해!”

“…송이가 괜히 수아를 아프게 한 걸까?”

숨을 거둔 송이를 두고 떠나간 수아, 하지만 표정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어요.

그 순간, 몇 번이고 수아를 찾아 헤맸을 송이의 형상이 조금씩 벌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어 송이는 이제 자신에게 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대로라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사라져 버릴 거라네요. 그러니 PC들이 진심을 나눠준다면 남은 힘에 PC들의 의지를 보태 수아의 꿈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또 혼자 들어가기엔 꿈이 너무 어렵고 무섭다면서요.

백스테이지 장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끝은 언젠가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끝을 맞이하지 못한 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줘야 하는 걸까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서글프고, 때로는 아련하고. 이 여름에서 나눈 희로애락의 고뇌를 담아봅시다. 언제나의 합주와 다른 점은 없지만, 우리만이 볼 수 있는 관객 한 명이 이 순간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PC들은 송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름 합숙 연주를 들려주기로 합니다.

배경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PC들의 합숙 장소 내 연습실일 수도, 여름 공연을 위한 야외무대일 수도 있겠죠. 송이만을 위한 무대여도, 다른 관객이 함께해도 좋습니다.

*나 혼자 다시 들어갔다간 또다시 금방 나와버릴 거야.
그래도 이 몸이 다할지언정, 너를 만나기 위해 잠길래.*

서브 시나리오 클리어 여부에 따라 컨디션을 획득합니다. 이후 결의 판정을 진행한 다음 라이브 페이지에 돌입합니다.

라이브 페이지

송이에게 부족한 것은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수아에게 닿을 수 있을까. 수아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걸까. 무사히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소중한 과거를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정리하고 전하러 갈 수 있도록 송이를 붙잡고, 밀어줍니다!

아웃트로 페이지

DP가 0이 되었을 경우

PC들의 라이브를 감상한 송이는 PC들을 마구 칭찬하며 고마워합니다. PC들의 음악이 가진 위력을 직접 마주하니 꽤 신기하면서도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받아 푸른 활기가 도는 유령은 주먹을 꼭 쥐며 말합니다.

“너희는 정말, 정말 대단해!”

“고마워! 덕분에 한 번 더 힘내서 수아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수아의 꿈은 너~무너무 어둡지만…. 이제 힘내서 한 번 더 들어가 볼 거거든.”

“같이 가면 안 무서울 테니까 슬쩍 물어본 건데, 다들 간다고 한 거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송이는 PC들의 손을 잡고 바닥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어라, 송이의 손이 잡히는 건 어째서일까요? 이대로라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 텐데…. 곧 다가올 충격에 질끈 눈을 감으면,

퐁당,

우리를 반긴 것은 딱딱한 바닥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와도 같은 물 속입니다.

모두의 손이 줄줄이 잡힌 채 아래로, 아래로 향합니다.

지상이 멀어져 갑니다. 감각이 아득해집니다. 몽롱한 기분이 듭니다.

아, 그래요…. 꼭 꿈에 빠져드는 것처럼.

하지만 곁에 송이가 있으니, 그리고 서로가 있으니 이 어둠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 수아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와의 갈등을 풀고 이 꿈을 나눌 수 있을까요?

송이는 마음을 열고 있는 힘을 다해 수아의 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PC들을 안내합니다. PC들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송이는 형체를 잃지 않고 2부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송이의 존재가 수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2부의 굴레 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P가 0이 되지 않았을 경우

PC들의 라이브를 감상한 송이는 PC들을 칭찬하며 고마워합니다. 어쩐지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건지 약간의 떨떠름함이 묻어 있지만요. 깜빡, 푸르스름한 유령은 손을 쥐락펴락하며 말합니다.

“...노래라는 거, 무척 신기하다.”

“고마워! 덕분에 한 번은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대신... 너희가 가줄 수 있어?”

“...나로는 이제 안 될 것 같거든. 너희가 말한다면 수아가 내 마음을 더 잘 들어줄까?”

“너희를 꿈속으로 보내고 나면 나는 사라질 거야.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 원래 떠날 운명이었으니까.”

“함께 못 가서 미안해. ...나 대신 잘 해낼 수 있지? 그럼... 부탁할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송이는 PC들의 손을 잡고 바닥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어라, 송이의 손이 잡히는 건 어째서일까요? 이대로라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 텐데... 파스스, 푸른색을 잃고 투명해져 허공에 섞이는 송이의 형상을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충격에 질끈 눈을 감으면,

퐁당,

우리를 반긴 것은 딱딱한 바닥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와도 같은 물 속입니다.

모두의 손이 줄줄이 잡힌 채 아래로, 아래로 향합니다.

지상이 멀어져 갑니다. 감각이 아득해집니다. 몽롱한 기분이 듭니다.

아, 그래요... 꼭 꿈에 빠져드는 것처럼.

하지만 송이가 무운을 빌어주었으니, 그리고 서로가 있으니 이 어둠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 수아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와의 갈등을 풀고 이 꿈을 나눌 수 있을까요?

충분한 에너지는 받지 못했지만, 송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수아의 꿈으로 PC들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송이의 역할은 거기까지, 에너지를 다해 더 이상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송이는 사라지고 맙니다.

송이의 존재가 수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2부의 굴레 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레

굴레 ① 「나를 적셨던 푸르스름 가랑비는」

정체: 불온한 분위기

지배력: 공개 시 6 / 비공개 시 9

지정 특기: <과거/가치관2>, <만나다/행동10>

그날은 뻗속까지 시리는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돌아갈 길을 잃어 거리를 배회하던 중, 수아가 자신에게 손길을 건네주었다. 축축하게 몸을 적시던 비가 우산에 가려지고, 나를 보며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을 짓던 그 아이. 수아와의 인연이 시작된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굴레 ② 「새파란 물결로 넘실대다」

정체: 속박

지배력: 공개 시 8 / 비공개 시 11

지정 특기: <심장/신체7>, <계절/모티브11>

그 후로 봄이 지나 여름이 오기까지 수아의 집에 머무를 수 있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행복한 추억이 하나하나 덧그려져 갔다. 수아에게는 내가 힘이었고, 나는 수아가 있어서 살 수 있었다. 몸이 하루하루 말을 듣지 않고 하나씩 망가져 가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 왔다.

굴레 ③ 「네게 서슬 퍼런 명 자국으로,」

정체: 프레셔

지배력: 공개 시 9 / 비공개 시 13

지정 특기: <확신/정서9>, <상실/역경3>

죽어서 유령이 된 후, 수아는 이사를 갔다. 하지만 내가 본 수아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수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걱정되어 말을 걸어 보았지만 쉽사리 그를 다독일 수 없었다. 수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이대로라면 떠날 수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후기

파랑과 여름과 밴드를 사랑하는 인간이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부는 순전히 여름휴가를 즐기는 밴드맨들을 보고 싶은 사심으로 작성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배경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아이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신선하더라고요. 세세한 진상은 2부에서 밝혀지는 만큼 시나리오도 별도의 기믹 없이 기본 골조 그대로 구성했어요. PL 분들께 날조를 적극 권장하며 서로 사심도 부리다 보면 즐겁고 알찬 이야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게다가 2부는 적극 날조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단련하세요.)

진상이 사람에 따라 다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보니 플레이하시는 분들께도 꼭 괜찮은지 재차 여쭙보도록 합시다. 즐겁기 위해 가는 세션이니깐요.

사랑하는 밴드를 여름휴가에 담가보세요. 🌂🍰

자세한 비하인드와 못다 한 후기는 2부에서 풀겠습니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만나요.